

2010.6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0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0.6.22	대전MBC 대회의실	8/11	7	

- 시청자위원 불참자(3명) 명단: 장인순 위원, 김경숙 위원, 여운철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고대석 사장, 강덕원 경영사업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서영석 보도국장, 김경환 기술국장, 이상현 전략기획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2	4	7	-	5	16	-	18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4	4	-	18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3건	3건	
보도	중앙 방송에서 다룬 뉴스를 지역에서 똑같이 다루는 중복 취재 피해 달라.	불가피하게 같은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경우 형식과 내용을 각색해 중복된 느낌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	'10.5월
방송편성	자체 제작 TV 드라마 편성 검토 요구	장기간 기획을 거쳐 서울MBC, 충남도와 백제 관련 드라마 제작을 검토, 협의.	'10.5월
방송편성	방송 환경 변화 대책으로 시장성 있는 거점 프로그램 개발 요청	현재 지역MBC 4사에 판매 중인 '이야기쇼 타임워프'의 경쟁력을 높여 거점 프로그램으로 육성	'10.5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기타	<p>○ 6.2지방선거 대전MBC 대활약하며 좋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등 저력 과시해 칭찬해주고 싶고, 사보 재발간과 안준철 기자의 목요언론인상 수상 축하한다. (김영광 부위원장)</p>	<p>○ 사보 재발간과 안준철 기자 수상 축하 인사 감사드리며 7.28 천안 을 보궐선거도 뉴스 취재와 후보자 초청토론을 준비해 공정한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p>	의견참고
교양	<p>○ 날씨가 무더워지는 만큼 건강에 유용한 정보나 날씨 관련 프로그램 보다 많이 방송해달라. (김영광 부위원장)</p>	<p>○ 뉴스의 경우, 식중독 관련이나 열대야 현상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7, 8월 여름철에 미리 알아둘 건강 정보를 건강플러스(TV)와 3830상담실(R), 건강리포트(R) 등 건강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다한증과 더위로 인한 무기력증 예방법 등을 소개했고 자외선 대비 피부 관리, 식중독 예방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p>	수용
보도	<p>○ 7월 1일자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실행 등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김영광 부위원장)</p>	<p>○ 선거 직후 라디오 시대공감에서 대전시장, 충남지사와 각 시군 지자체장의 공약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실행내용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쳤으며 뉴스에서도 전.현직 자치단체장들의 공약비교나 계속 사업은 문제 제기를 통해 예산낭비 등이 없도록 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p>	수용
교양	<p>○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의 경우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가 프로그램 전체를 매끄럽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다. (방기봉 위원)</p>	<p>○ 그동안 진행자가 교수이면서 토론까지 병행해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대전.충남에 원만한 전문 진행자가 없어 매번 난항이 따르고 있어 7월 1일 방송부터는 보도국장으로 진행자를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부에서 토론전문 MC를 육성할 방침입니다.</p>	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방송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당선인 초대를 비롯해 선거를 결산하고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분석하는 마무리 성격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방기봉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이후 6/10, 17, 24일 3차례 집중토론을 통해 대전시장과 충청도지사, 시.도교육감 당선자를 초대해 선거를 결산했으며 6월 4일 시사플러스에서도 충청지역 민심을 분석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투데이에서도 당선자들을 초대해 인터뷰 형식의 뉴스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수용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관련 기획보도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포함해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김경옥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선거보도에 뛰어들었으나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의견참고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4일자 시사플러스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 발빠르게 충청지역 민심을 분석하는 내용이 방송돼 시의 적절했다. 전개방식과 구성 좋았고, 특히 지역감정으로부터 객관적 시각을 시종일관 유지한 점 높게 평가한다. (안정선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평가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시사플러스에서는 선거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객관성과 시의성을 원칙으로 성실히 접근할 계획입니다. 	의견참고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18일자 시사플러스는 금강살리기 문제를 다뤘는데 쉽게 설명해 참여한 대립 상황에 대한 시청자 이해를 도왔고, 사진과 CG도 적절히 구성됐다. 반면, 금강유역 기초단체장의 입장이 덧붙여지지 않아 아쉽다. (안정선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하겠으며 기초단체장 입장은 공식적으로 중단을 요청한 충남지사의 행보와는 별개로 각 시.군 지자체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가 있어 인터뷰 요청에도 미온적이거나 유보 자세를 보여 덧붙이기 어려웠습니다. 	의견참고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 이후 당선자 초청 특별대담이 방송됐는데 기획의도는 좋았지만 대담 내용 구성이 너무 평이했다. 질문이 쟁점을 부각시키지 못할 정도로 변별력 없었다고 본다. 또, 진행자가 프로그램의 활력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된 것 같다. (안정선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자들 일정이 바쁜 관계로 방송시간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따라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을 드리며 앞으로는 깊이 있는 토론이 되도록 질문 선별 방식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수용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기타	<p>○ 공주와 논산에서 대전MBC 방송을 볼 수 없다. 청주MBC 방송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공주는 천안과 함께 충남지역의 여론주도층 밀집 거주지역인 만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안정선 위원)</p>	<p>○ 현재는 공주와 논산지역을 커버하는 대전MBC 중계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주파수 부족 등의 이유로 아날로그 TV중계소 구축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우선 양해바랍니다. 하지만 2012년 말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디지털TV 중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계소 부지 확보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p>	수용
기타	<p>○ 뉴스 세트의 배경 컬러가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운 느낌이 든다. 개선 바란다. (김진국 위원)</p>	<p>○ 뉴스 세트는 가을 개편에 맞춰 일부 교체할 계획이며 전면 개편은 디지털 전환 시점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p>	수용
교양	<p>○ 후보자 토론회를 보면서 대전MBC가 정치적 편향을 떠나 너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사 채널을 선호하는 특정 유권자들을 향한 방송 보다는 보다 폭넓은 유권자를 위한 토론을 준비했다면 좀 더 풍성한 구성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진국 위원)</p>	<p>○ 특정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용적, 현실적인 문제접근을 꾀하겠습니다.</p>	수용
보도	<p>○ 뉴스를 보면 인터뷰 대상이 대부분 교수인데 대전이라는 도시가 가장 박사급 인구가 많은 곳인 만큼 교수 외에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김진국 위원)</p>	<p>○ 인터뷰이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작 방송사가 원하는 인터뷰이는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따릅니다. 앞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멘트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수용
방송편성	<p>○ 지역방송의 가장 큰 재원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일 것이다. 특히, 대전은 외국인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편성했으면 한다. 그 과정에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 (김진국 위원)</p>	<p>○ 이미 5월 22일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을 통해 대전거주 외국학생들의 축제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말씀대로 대전은 연구단지와 연계된 많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거주하는 만큼 앞으로 다문화 기획과 연동해 관련 코너나 프로그램을 검토하겠습니다.</p>	수용
기타	<p>○ 방송에서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자제했으면 한다. (신현대 위원)</p>	<p>○ 원고작성과 진행 과정에서 외래어 본뜻을 효과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우리말을 발굴해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 TV전국기행을 시청했는데 아주 좋았다. 덧붙여 버스표 1장으로 다닐 수 있는 대전의 산이 60곳에 이른다고 한다. 등산 인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방송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신현대 위원)</p>	<p>○ TV전국기행 기획 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으며 생방송 전국시대에서도 방학기간 가족단위로 갈만한 산행을 방송 중입니다.</p>	수용
기타	<p>○ 뉴스에서 앵커가 다소 산만하고 통일된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김재영 위원) ○ 앵커들을 자세히 보면 초점이 없어 보이고 앵커멘트도 시청자로 하여금 궁금증이 들거나 뉴스에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유치벽 위원)</p>	<p>○ 앵커들이 전달력과 표정, 억양 등으로 시청자에게 흡입력을 전해주는 관점의 일관성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앵커멘트 작성 등 앵커들의 재교육과 함께 언어 프로그램의 계획을 검토하겠으며 매일 실시하는 자체 모니터도 강화하겠습니다.</p>	수용
보도	<p>○ 대학생들과 함께 뉴스를 모니터링 했더니 자료화면이 반복되고, 어깨걸이나 자막의 일관성 부족과 함께 뉴스의 핵심을 짚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뉴스투데이의 오늘의 게시판은 정보라고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평가됐고, 뉴스의 진열방식도 뉴스가치에 따른 편집이 아니라 무작위 배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본다. 뉴스는 단순한 장르나 프로그램이 아닌 방송사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인 만큼 타사에 비해 저평가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수년째 뉴스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뉴스 구성 등 전체적인 개선 시급하다. (김재영 위원)</p>	<p>○ 대전MBC는 대전 150만 명, 충남 200만 명의 인구를 커버하고 있어 지방MBC에서는 부산 다음으로 가시청 인구가 많은 반면, 16명의 취재인력으로 대전.충남을 아우르는 뉴스를 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인력만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지만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	수용